

정재규 협회장, 요양급여비용협위원장 당선 의협회장과 경합 "전폭 지지 획득"

요양급여비용협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200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2대 위원장에 정재규 협회장을 선출했다.

의협, 한의사회, 간호협회, 조산사회, 약사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9개 의료단체장과 복지부 보건증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대 위원장 후보로 정재규 협회장과 신상진 의협 회장이 후보로 나서는 2파전으로 전개됐다.

두 후보는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무기명 투표 실시, 총 투표수 10표 중 정 협회장이 6표를 얻어 4표 획득

득에 그친 신 의협 회장을 누르고 제2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정 협회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장을 맡아 의약단체 대표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계약을 행하게 된다.

올해 정 협회장은 특히 '요양기관 종별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의협을 제외한 각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중이어서 의약단체 모두가 수긍하는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치 된다 김성호 장관 설립 추진 약속

국립 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7월 3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김성호 장관과 면담을 갖고 16개항의 치과의료계 정책건의 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치협 건의안 중 하나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배석한 구강보건과 관계자에게 "예산문제가 어떠냐"고 묻고 "자신이 5월중에 부임했다면 예산을 반영시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립 치의학 연구원이 설립되면 출범 4개월 째를 맞고 있는 현 집행부의 첫 회무 성과 여서 주목된다.

치협은 앞으로 복지부 내에 연구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회무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치협, 대행정구센터 9월 가동 희망 치과 찾아 서비스 제공 방침

치협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정구 센터가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돼 대행정구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대행정구센터 추진위원회(위원장 금광식)는 지난 8월 6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0일 정기이사회 때 치협 회관 내에 만들어지는 대행정구센터 개소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행정구 사업추진방향은 각 지부 자체에서 대행정구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협에 위임한 지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사업조직 체계는 단순하게 하며 최소한의 예산과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키로 했다.

실행 방안으로 추진위는 대행정구 인력을 치협이 뽑고, 청구 인력이 대행정구를 원하는 치과를 찾아가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경인·강원지역 대행정구 인력은 치협 대행정구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각 지부에서 관리토록 했다. 특히 서울경인·강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별 운영형태 대로 사무국을 운영키로 했다.

즉 심평원의 광주지원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대행정구 사무국은 광주전남 전북지부 중 한곳에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대행정구요원은 일단 대행정구 치과가 600여 곳인 점을 감안 20명 내외로 뽑을 예정이다.

대행정구 수수료는 청구금액의 4%로 정하되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키로 했으며, 대행정구 요원은 일정한 기본급에 능력급제로 하는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대행정구센터 사무국인력은 사원급 2인으로 계약직으로 뽑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결정사항을 8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박규현 정보통신, 현기용·조영식보험, 최동훈 법제이사가 참여했다.